



협력자회와 재속회들 대표들이 함께 한

제41차 바오로 가족 총통솔 모임

최종 메시지

교회의 시노드 여정 안에서 바오로 가족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무한한 기쁨으로 협력자회와 여러 재속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제41차 바오로 가족 총통솔 모임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친교를 나누며 충만하게 교회의 시노드 여정에 동참한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파브리시오 카를레티(Fabrizio Carletti)께서 모임을 인도하는 가운데 영성, 사명, 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바오로 가족의 몇몇 체험들도 우리에게 빛을 주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 가족 영성센터(한국), 바오로 카리스마 코스(로마), 성 바오로 전국 성경 퀴즈 대회(필리핀), 도서 및 성경 축제(콩고), 바오로 협력자회 회칙 작업팀(브라질), “성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팀(이탈리아). 저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창립자의 의향에 따라 고유한 바오로 가족으로서 시노달리타스를 표현하며 세상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널리 알려지도록” 당신 사랑과 똑같은 지혜로써 바오로가족 안에 많은 부흥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를 ‘마니피캇’으로 인도한다.”(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4)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가족의 미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며칠 동안 수행한 작업을 요약해 볼 때, 서로의 의견을 대조하고 나누는 여정은 언제나 친교를 더욱더 강하게 하며, 이 친교는 우리 선교활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대의 징표에 비추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꿈꾸셨던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다루었습니다. 선교(사명)를 변화와 식별의 기회로 여기면서, 다양한 각 나라의 현실에서 쇠퇴해가는 카리스마를 재탄생시켜야 하는 임무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불연속성의 징후, 즉 기존에 관습처럼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과정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오로 가족의 각각의 가지들은 연결시키는 관절임을 인식하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언제나 충실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성의 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완전한 공동 책임으로,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장소와 최상의 투신의 공간을 함께 찾기 위해서 바오로
가족 내에서 평신도들이 온전하게 자주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바오로 가족을 생각하면 빗물, 얼음 녹은 물, 여러 작은 샘물이 흐르면서 불어나는
하나의 물줄기에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물줄기는 비옥한 평야에 물을 대고 전력, 전열, 전광을
생산하도록 나누어진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5)

창립자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 취하면서, 총통솔들이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훈련이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는 새로운 선교적 도약을 시작을 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기쁘게 전진하십시오!

2024년 1월 15일, 로마

협력자회와 재속회들 대표들이 함께 한
제41차 바오로 가족 총통솔 모임 참석자들

